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참관기

AIA 2013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강승우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1. 개요.

- 1) 명칭 :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전국대회 및 디자인 엑스포
- 2) 기간 : 6월20일부터 6월22일
- 3) 장소 : Denver Convention Center, Denver, Colorado
- 4) 주제 : “Building Leaders” - Leadership for Architecture; Leadership Beyond Architecture
지도자 구축 또는 은유적으로 건축 지도자들 - 건축을 위한 지도력; 건축이상의 지도력
 -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비전적인 지도자로서의 건축사의 중요한 역할과 건축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 주제로 선택.
- 5) 한국참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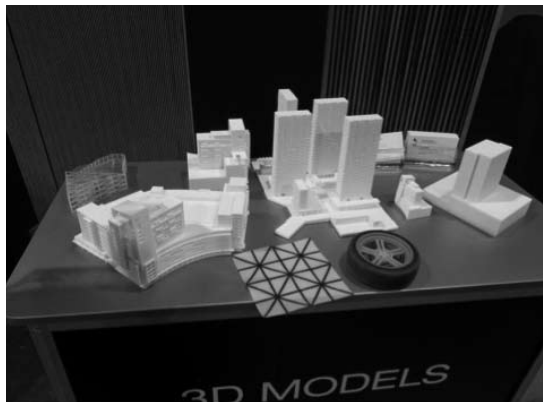
- 대한건축사협회 : 김영수 회장, 강성익 고문, 강승우 국제위원
- 한국건축가협회 : 한종률 부회장, 한영근 국제위원회 위원장

2.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 차기회장단 선거, 임원회의, 정관 변경, 사업 논의 등 협회 내부 회의 및 선거
- 2) 주최 주인 콜로라도 주 지회가 주관하는 파티, 건축투어, 강의, 전시
-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 필수교육 - 각 주 건축사 자격증 유지에 필요한 교육시간과 미국건축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들
 - 전국대회교육 - 기초연설, 사전워크숍, 공공건축가 워크숍,



자재전시 엑스포



자재전시 엑스포



2013 골드메달 - 톰 메인

세미나, 교육투어, 엑스포전시장 현장 교육

- 4) 이벤트와 투어 - 전임 회장들 만찬, 전임 회장부인들 만찬, 국제 단체장들 오찬등 여러 레벨의 교류, 사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들로 외국대표단들이 주로 참석하는 이벤트
- 5) 자재전시 엑스포 - 각종 자재 및 기술들을 지속가능 에너지 전시관, 조명 전시관, 석재와 타일전시관, 미디어 전시관, 콘크리트 전시관, 금속 전시관, 목재 전시관,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시관 등으로 분류하여 전시
- 6) 각종 수여식 : 2013 골드메달-톰 메인, 2013 건축사사무소상-토트 윌리엄스 빌리 치엔, 25주년 건축상-메닐 컬렉션, 렌조 피아노, 교육자상 토포즈 상-로버트 그린스트리트, 휘트니영상-하비 겐트

이외에도 건축분야별 상, 인테리어 상, 도시계획상, 공공건축상(공무원, 공공건축설계 등) 신진건축사상, 주택보급국상, 도서관상, 준회원상, FAIA 수여식 등 여러 부문 상들을 여러 이벤트와 같이 진행.

3. 행사참석

1) AIA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 (AIA 이사회 중 점심시간 이용) 과 오찬

본협 강성의 고문,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 쉘슈지안 중국건축학회 회장, 폴 버크마이어 호주건축사협회 회장, 마리아넬라 캘드론 코스타리카건축사협회 회장, 길레모 루이즈 멕시코 건축사협회 회장, 폴 프랭크 캐나다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수상하였다. AIA 임원들과 수상자들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기념오찬을 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중국대표단은 일곱 명 정도로 수상식에는 많이 참석하고 그 후 모든 일정에 불참.

2) UIA 임원과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자 만찬

셀리반이라는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UIA 알베르 듀블러 회장, 루이스 콕스 전임회장 등과 각국 협회장 그리고 김영수 회장, 강성의 고문, 강승우 국제위원 등이 참석하여 식사하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주로 화제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UIA 세계건축대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주로 대화내용이었으나 알베르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세계건축대회에 대한 홍보를 더반 대회 폐회 후까지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함. 아마도 서

울 대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차기 주제 대회의 성과를 격정한 듯 한 인상을 받았다.

3)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

AIA 국제위원장인 크리스틴 브루크너, Ph D., FAIA 주제의 스탠딩 파티 형식의 환영식. 이 자리에서 뉴욕주 지부장인 질 러너, FAIA 와 크리스틴 국제위원장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서울, 도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상하이의 도시를 탐구하여 뉴욕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여 본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협조하겠다고 협의 함.

4) 국제단체장 포럼 과 헬렌 드리어링 차기회장 주최 오찬

AIA 미키 제이콥스 회장, 헬렌 드리어링 차기회장, 국제위원회 임원들과 본협 강성의 고문,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 UIA 알베르 듀블러 회장, 타로 아시하라 일본건축사협회 회장, 폴 버크마이어 호주건축사협회 회장, 마리아넬라 캘드론 코스타리카 건축사협회 회장, 길레모 루이즈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 폴 프랭크 캐나다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첫째로 귀 단체와 회원들은 리더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둘째로 건축사와 건축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인식을 높일수 있는가? 셋째로 앞으로 10년간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건축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약 개인 5~7 분으로 주제를 발표하였다. 강성의 고문은 협회가 학생 교육 참여 등을 통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의 발표자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치가 미국에서 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도 건축사의 위상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함. 일본의 유명건축사이며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토요이토도 재능 기부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전함.

이어진 차기회장 주최 오찬에서는 김영수 회장께서 차기회장에게 한국방문에 초대하여 이에 내년 초에 방문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 여러 AIA 임원, 전임 회장들, UIA 회장 및 임원들, 각국 건축사협회 임원들과 환담하였음. 많은 사람들이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함.



2013 건축사사무소상 - 토트 윌리엄스, 빌리 치엔



25주년 건축상 - 메닐 컬렉션, 렌조 피아노
교육자상 토포즈 상 - 로버트 그린스트리트, 휘트니영상 - 하비 겐트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 탄 페이 잉과 함께

5) FAIA 수여식

엘리 코킨스 오페라하우스라는 완전히 내부가 리모델링 된 유서 깊은 건물에서 122명의 새로운 명예 건축사들과 7명의 해외 명예 건축사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 AIA의 전임 회장단이나 명예 건축사 원로들이 새 명예건축사들을 직접 일일이 안내하여 수여식 진행.

6) AIA 회장 주최 리셉션과 명예건축사들을 위한 만찬

명예건축사들을 위한 만찬 전에 미키 제이콥스 회장 주최로 2013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자들을 위한 리셉션에서 김영수 회장은 미키 회장에게 초대에 감사하며 본협과 미국건축사협회의 상호교류에 더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미키 회장과 부인에게 본협에서 준비한 자개보석함을 주니 미키회장이 자기 집사람은 보석함을 채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들 웃음. 일본건축사협회는 미키 회장과 전임 코터 회장에게 명예일본건축사 메달을 공식적으로 수여하여 관심을 받음.

만찬에서 명예건축사 원로들, 전임 회장들, 프레지덴셜 메달리스트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명예건축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자리를 갖으면서 식사와 음악, 그리고 늦게 댄스파티까지 이어졌다.

4.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주제가 주는 메시지

1) 기조연설 1 : 양심있는 자본주의와 미래의 비즈니스

- 블레이크 마이코프스키(탐스 창업자)

‘하나에 하나’ (신발 하나를 약 40-50불에 사면 후진국에 있는 신발 없이 사는 어린이들에게 신발 하나를 주는 의미)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유명한 탐스 창업자의 창업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우연히 여행간 아르헨티나에서 현 신발을 낙후지역에 나누어주는 봉사단체에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내어 신발을 팔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사업도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기부활동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사업도 번창하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도 몰려드는 선순환의 생태체계를 이루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일류 기업들과 같이 여러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도 기여하고 돈도 벌고 하는 아주 강한 회사이자 재단으로 발전시켰다.

2) 기조연설 2 : 당신이 아끼는 것처럼 디자인 또는 당신이 소중하게 하는 디자인

- 카메론 싱크레어(창립자, '인도적인 건축' 회사)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세계각지에 뜻을 같이하는 건축사들과 연계하여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런던대학 건축학과 졸업 후 논문으로 뉴욕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지속가능하고 변하는 쉼터를 연구하며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6년 케이트 스톨즈와 같이 책을 쓰면서 현재 '인도적인 건축'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세계에 재난이 난 곳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작은 설계를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큰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2006년 TED 상을 받은 후로 전세계에 열린 건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열린 자원 커뮤니티를 시작하였다. 전세계 건축사들의 시간 기부로 많은 일을 진행하며 이제는 토요일도 같은 유명 건축사들도 동참하여 재난 극복, 환경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세상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단순히 재능기부만 모으는 사무실이 아니라 이를 자금조성, 기부금 조성, 자재 기부 등 이러한 열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 조성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회사이다.

3) 기조연설 3 : 책임지는 리더십

- 콜린 파월 장군(전 미 국무장관)

키가 155센치 밖에 안되는 자메이카 이민부모의 아들로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한 이민자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더십은 큰 데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있는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어린 시절 많은 사촌들과 함께 할렘의 어두운 동네에서 자랄 때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 돌봐주며 이끌어 주었던 일들이 자기의 현재를 만들었다며 가족간의 사랑과 지도가 없었다면 미국을 이끄는 미국 국무장관도 없다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가족의 사랑으로 배운 여러 리더십과 배려는 훗날 레이건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고문, 부시 정부와 클린턴 정부에서 미 합참의장,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 등을 역임하며 세계



미국건축사협회 헬렌 드리이닝 차기회장과 김영수 회장



아시아건축사협회의 사티 룯 누이 탄다난드 펠로우 십 의장 및 단페이 잉 회장과 함께



FAIA 수여식

각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여러 갈등지역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오랜 시절 해왔다.

4)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환영의 글 및 미키 제이콥스 회장의 환영사 요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다. 디자인은 인간의 필수요건을 충족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과 미래세대에게 남겨두는 역사를 정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모든 미국국민이 삶의 질과 지구의 생태를 위해 나누는 포럼이며 이 포럼을 바로 우리, 건축사가 우리와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리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살 맛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시민 건축사’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덴버는 한 동안 무질서한 계획으로 어지러운 환경이었지만 건축사들과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200여개의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도시로 다시 탄생하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세상의 리더로서 우리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덴버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꿈, 신념, 이상과 통하며 이번 컨벤션을 통하여 강의, 투어,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전국대회에서 소규모 사무실부터 큰 사무실까지 창조적인 생각을 나누고 보다 뛰어난 생각들을 배우고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며 다시 우리 사무실, 고객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알리고 같이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됩시다.」

미키 제이콥스 회장은 건축사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건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추진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국회나 여러 경로로 건축에 대한 인식 고양에 힘쓰고 있다고 침언하였다. 또한 협회 내 정치관련 단체(Archi-Pac)에 많은 기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협회는 현재 AIA repositioning 이라는 협회의 나아갈 길과 전략을 다시 모색하는 컨설팅을 미국 내 우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소위원회와 또한 회원들의 인풋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협회의 중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폐회식때, 2013년도 선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두 명의 여성끼

리 결선 투표 끝에 차차기 회장이자 내년도 수석부회장에 엘리자베스 추 릭터, FAIA 가 당선되어 임원진들과 소개받았고 차기회장인 헬렌 드라이링, FAIA 가 내년도 대회장소인 시카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선투표도 두 여성건축사들이 하고 내년부터 2년 연속 여성 건축사가 회장을 하는 등 여성 건축사의 위상이 고양되었다.

5.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1) 공정한 사회 - 흑인, 여성, 이민자 등 여러 소수 약자들이 수상, 회장당선, 명예건축사 추대 등 완벽하지 않지만 대부분 긍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 2) 합리적인 협회 - 모든 행사는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모든 계획 미리 준비.
- 3) 재미와 참여 - 골프대회, 리셉션, 스탠딩 파티, 밴드 동원한 활기찬 대회장
- 4) 건축교육, 도시설계, 인테리어, 건설 연관 분야와 연계 - 다른 분야의 공헌자들에 대한 배려로 건축사협회의 포용력을 보여줌
- 5) 개최도시와 연계 - 개최도시와 주의 홍보에 많은 할애.
- 6) 자원봉사
- 7) 확실한 네트워킹 - 여러 레벨의 리셉션, 초대, 파티, 만찬, 투어
- 8) 재원확보 - 계속교육비, 엑스포 참가비, 기업후원, 협회 서점 등 부가 가치사업
- 9) 신구세대의 조화, 선배들에 대한 존경과 후배들에 대한 배려.
- 10) 건축사에 대한 존경과 건축사 자신의 자긍심

이번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 받았지만 거대한 미국건축사협회의 규모와 역사를 따라할 수는 없고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이번 경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지만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선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열정을 합쳐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편견과 난관을 이기고 건축사의 제대로 된 위상정립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이다. ▣



기조연설 1 - 블레이크 마이크로프스키



기조연설 3 - 콜린 파월



폐회식 공연